

# 권한 막강한데 견제 장치 없어...제도 보완 시급

광주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인선 논란 배경·대책은

부적격 인사 걸러낼 방법 없어  
시장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자치단체 견제·감시 기능 약화  
공정성·전문성·중립성 등 배제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초대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전문적 활동 여부 등이 초기 제도 정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 만큼이나 초대 위원 구성을

놓고 인선 전부터 특정 인맥설을 비롯한 사전 내정설이 떠도는 등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 대전시의회 등에서도 추천위원 2명이 시의회의장과 인척관계 등이 드러나 자진사퇴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끄럽다.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위원선정 과정부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성이 선행돼야 하며, 자치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위원회를 이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자치단체장인 광주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정무직 2급이다. 상임 위원은 위원회 제정을 통해 정무직 3급으로 임용돼 상근적으로 근무한다.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팀, 경찰 파견 11명을 포함한 28명으로 구성된다. 자치 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달 중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선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한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지켜내기 위해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민선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소속 합의회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등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놓이

게 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위원회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자치경찰 컨트롤 타워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권과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장 받는 구조다.  
이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단체와 의회, 교육청 등 이른바 지역 집권 세력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자

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배제되고, 추천권을 가진 자들이 부적절한 측근 인사를 추천할 경우 공식 출범 이후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일단 자격조회 등 검증을 거쳐 다음 달 10일자로 첫 자치경찰위원들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타 기관 추천위원의 경우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됐더라도 거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위원 추천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합의회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만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성별 등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타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조회 절차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사회적기업 브랜드·디자인 개발 전남도, 참여기업 30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 기업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123개 업체를 지원한 결과 기업 온라인 매출액이 평균 3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공모는 ▲이미 개발된 브랜드를 수출 시장에 맞게 개선을 돕는 수출지원형 ▲신규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일반형 2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모집 대상은 전남지역 마을 기업·사회적 기업·6차 산업 인증 기업·정보화마을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최병암 산림청장,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과 함께 도심권역 산림사업 및 광주시립수목원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 외딴 섬까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전남도가 외딴 섬마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정보서비스를 향상해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KT와 함께 인터넷 소외지역과 섬 지역 등 도내 141개 마을(육지 109개, 섬 32개)에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인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은 섬과 산간 마을에서도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도록 광케이블, 광단자함, 통신주 등을 설치해 100Mbps 이상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올해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 농어촌지역에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산림청-한국수목원관리원, 광주시립수목원 조성 손 맞잡다

### 도심권역 산림사업 업무협약

광주시와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광주시립수목원과 도심권역 산림사업을 연계한 명품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최병암 산림청장,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 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활

용한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에게 쾌적한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생활환경 개선 기능 강화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적극 예방 ▲한국수목원관리원 소관 국립수목원 서비스 제공 ▲한국형 산림뉴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산림문화·휴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2009년 조성계획 결정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5월 착공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국립수목원과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교류, 기술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산림청에서 도심권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산림청은 광주시 도심권 내에서 다양한 산림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만금수목

원 등 3개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기반으로, 광주시립수목원과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도심 내에 수목원, 정원,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시가 미래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국유림 내 산림사업과 시립수목원이 연계되고 국립수목원의 많은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접목하면, 광주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심권 산림사업이 가지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주택·건축, 부동산·지적, 환경·정보통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청내 민원실을 설치하고,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 (남구 압촌동·지석동·대지동 일원),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광산구 삼거동·덕림동 일원), AI 융복합지구(광산구 비아동,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일원) 총 4개 구역으로 지난해 6월 지정됐다.  
경자청은 이들 4개 구역에 대해 당초 3개 자치구에서 각각 담당하던 23개 법령, 7개 분야의 민원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 사무는 주택건설·건축, 부동산·지적, 환경 및 정보통신, 공장등록 및 가스·약물 및 관광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준법감시심의필(안)-제210142호(2021. 4. 16)

"바다애찬"은 엄선된 국산 수산물로 만든 수협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 바다애찬 오징어젓·낙지젓

수협이 직접 수매한 국산 오징어와 낙지에 국산 고춧가루와 마늘 양념을 더한 프리미엄 오징어젓, 낙지젓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협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https://blog.naver.com/adw9404>
<https://facebook.com/thesuhyup>
<https://youtube.com/user/suhyupfbs>
<https://instagram.com/thesuhyup>

www.shshopping.co.kr  
수협쇼핑과 Sh수협마트에서 구매하세요.